

금향로가 차기까지

JUNE 2024

www.silkwavemission.com | info@silkwavemission.com | 2111 W. Crescent Ave. Unit E, Anaheim, CA 92801



대표직을 내려놓을 이유
교회 개척자들을 위한 다섯번째 BTS 신학 과정
2024년 4월 비전트립 사역보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바라보는 관점
CP 보고 및 기도제목



SWM Web



SWM 후원



유튜브채널



카카오톡채널



SILK WAVE MISSION

SWM 연합기도제목

1.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능력으로 임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이다!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2.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마지막 시대의 소식들을 들으며 오직 말씀 위에 더욱 굳건히 서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만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쉬지말고 기도하며, 주님의 재림을 더욱 소망하며 왕의 대로를 수축하게 하소서!
3. 하마스-이스라엘의 전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수단의 내전이 속히 평화적으로 종결되게 하시며, 인도의 힌두권과 아프리카 및 서남 아시아 이슬람권에서 일어나는 주님의 교회와 성도를 향한 박해와 모든 폭력이 속히 멈추게 하소서!
4. 무슬림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슬람의 거짓의 영과 두려움의 영과 폭력의 영의 정체가 낱낱이 드러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 가운데 참 진리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전 3:11)이 더욱 강력하게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소서!
5. 연합기도운동(UPM/United Prayer Movement)를 통하여 튀르키예와 중동 및 이슬람권에 진정한 영적 돌파와 부흥이 더욱 강력하게 임하게 하시고, 교회개척운동(CPM/Church Planting Movement)을 통하여 성숙한 교회개척자들과 건강한 지역교회들이 현지에 계속 세워지게 하시며, 선교적교회운동(MCM/Missional Church Movement)를 통하여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게 하소서!
6. 주님께서 2018년부터 튀르키예를 중심으로 시작된 교회개척운동(CPM)이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계획(생각)과 방법(길)대로(사 55:8-11) 진행되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재정을 채워주시며 주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여 잘 감당하게 하소서!
7.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 그리고 미국을 기억하시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마지막 때를 위해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이루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SWM 사역일정

SWM 선교회의 2024년 사역은 다음과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KBP USA 이사회

- 기간: 2024년 8월24일(토) - 26일(월)
- 장소: ANC 온누리교회 (김태형목사)
- 기도제목: - KBP USA 이사회에 모든 이사들이 참여하여 이 시대에 튀르키예와 이슬람권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략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KBP의 역할을 깨닫고 동참하게 하소서

SWM USA 이사회

- 기간: 2024년 8월26일(월) - 28일(수)
- 장소: ANC 온누리교회 (김태형목사)
- 기도제목: - SWM USA 이사회에 모든 이사들이 참여하여 이 시대에 튀르키예와 이슬람권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략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연합된 마음으로 동참하게 하소서

4차 Holy Wave Makers(HWM) 1년 청년선교사

- 기간: 2024년 9월 - 2025년 7월
- 장소: 튀르키예와 그외 지역의 M 센터
- 기도제목: - 준비된 많은 청년들이 HWM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내주소서
- HWM을 통해 청년들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훈련되게 하소서

6차 CPRT

- 기간: 2024년 10월 7일(월) - 16일(수)
- 장소: 튀르키예, 조지아/아르메니아, 그리스/이집트, 요르단/이라크
- 기도제목: - 더 많은 교회들이 교회개혁트립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튀르키예와 이슬람권 지역의 교회개혁 운동에 참여하게 하소서

연합비전트립

- 기간: 2024년 10월 21일(월) - 30일(수)
- 장소: 튀르키예
- 기도제목: - 더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비전트립에 참여하여 튀르키예와 이슬람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사역에 참여할 수 있게 하소서



대표직을 내려놓을 이유

김진영 선교사(SWM 선교회 국제/미국 대표)

제가 러시아 칼미키아 공화국에서 8년, 터키에서 12년, 그리고 미국본부에서 12년 32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교회와 성도들의 사랑을 받은 행복한 선교사였습니다. 그동안 여러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동역자들의 기도와 격려로 인내할 수 있었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이제 어느 덧 세월이 흘러 현재 제가 맡고 있는 SWM선교회의 대표직을 내려놓을 충분한 이유 3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이유는 아내의 건강입니다.

아내 김은경 선교사가 2008년 식도암 수술을 받은 이후, 지난 15년 동안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만 늘 연약함 중에 있었고 여러 차례 고비를 넘기면서 힘든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20일 아내가 쓰러진 이후 76일 동안 병원에서 지내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표직 사임의 때를 생각하는 중에 그 기간동안 저는 아내를 잘 배려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불쌍히 보시고 많은 분들의 중보기도로 아내를 죽음 가운데서 살려주셨습니다. 그후 조금씩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 인공호흡기를 떼고 자가 호흡을 하게 되었고 손과 발을 움직이고 조금씩 걷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원인은 식도에 구멍이 생겨 물이나 음식, 위산이나 구멍을 통해 기관지와 폐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식도 구멍을 돼지 심장 패치로 덮고 metal stent을 눌러 덮는 시술은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 식도구멍이 잘 봉합이 되었는지 몇 차례 내시경 검사를

했지만, 계속 새는 것이었고 최근 5월30일 검사에서도 아직 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매일 병의 치료를 위해 하나님 말씀에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만 식도 구멍이 아직 샌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에 낙심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통증으로 인해 힘들어는 모습을 보면 '장으로 연결된 j-tube를 통해 feeding 해야 하는 것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과연 이런 상황에서 사역을 계속 할 수 있는가? 우리의 사역은 여기까지인가? 나는 이제 대표직을 내려놓고 아내를 돌보아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번째 이유는 사역을 하기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저는 2020년 10월, 2022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튀르키예 입국 거절 및 추방을 받았습니다. 현재 수많은 사역들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장을 방문하고 현지 사역자들과 선교사님들을 만나야하는데 제가 튀르키예에 들어갈 수 없는 안타까움과 답답함이 있습니다. 물론 본부에서 줌미팅을 통해 소통을 하고 여러 방면으로 지원사역을 하고 있지만 그곳을 방문할 수 없고 동시에 아내의 투병 생활로 인해 미국과 한국 교회를 방문하거나 동역자들을 만나는 것조차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표로서 이사 교회들을 방문하고 성도들을 지속적으로 만나야 하는데 아내 곁을 한시도 떠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직을 내려놓아야 하지 않은가 생각하게 됩니다.

세번째 이유는 저의 능력이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 팬데믹 중에도 저희 선교회 사역의 지경을 넓혀 주셔서 동역하는 현지사역자가 70가정이 넘습니다. 10개 지역의 M센터, 한인/외국인 선교사와의 동역, BTS 신학교 운영, Holy Wave Makers 청년선교사 동원, 현지 교회의 자립을 위한 Kingdom Business Partners 와 BAM사역, 수많은 사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표가 가장 부담이 되는 사역은 이 모든 사역을 위해 재정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특히 70 가정의 현지 사역자들의 생활비, 교회개척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재정입니다. 모든 책임이 대표에게 있기 때문에 때로 이 집이 무겁고 참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슬람권에서 성령의 바람의 불고 영적대부흥이 일어나려는 마지막 때의 징조를 통해 흠어지는 수많은 무슬림 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현지 지도자들을 세우고 훈련하며 동역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속도에 저희가 잘 준비하지

못해 재정이 부족한 상황을 늘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실력과 능력을 갖춘 분을 대표로 세우고 나는 대표직을 내려놓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세가지는 대표직을 내려놓는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대표직을 맡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아내의 건강도 그렇고 제가 더 이상 튀르키예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재정을 모금하는 것도 너무 힘듭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이 책임과 부담을 언제까지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사역을 감당했는데 이제 능력의 한계를 느낍니다. 그동안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마지막 때 이슬람과의 영적 전쟁을 피할 수 없기에 우리의 연합된 기도운동을 통해 그 땅과 민족 가운데 영적 돌파를 이루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이슬람권 선교를 위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 청년들을 세워야 합니다. 젊은이들을 후원하는 재정이 필요합니다. 현지 사역자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재정이 필요합니다. 현지 지도자들을 세우는 BTS 성경 신학 훈련을 위해 재정이 필요합니다. 교회개척 기금이 필요합니다” 여러 차례 외치고 부르짖고 도움을 요청할지라도 응답이 별로 없습니다. 응답이 없을 때는 ‘하나님 여기까지입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슬람권을 위한 영적 돌파와 부흥을 위해 연합기도운동에 동참해주세요. 연합기도회에 참여해주세요” 외쳐도 참여하는 성도들이 소수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외치고 선포해야 하나? 이제 더 이상 외치지 않겠습니다’ 하면 저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대표직을 내려놓고 싶어도 내려 놓을 수 없는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만 하라고 말씀하시고 이사회 목사님들께서 대표직을 내려놓으라 말씀하시면 저는 주저없이 그만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르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어떤 어려움과 도전이 있을지라도 이 사역을 계속 감당하라 말씀하시면 저는 죽기까지 충성할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온 열방과 민족들 가운데 임하고 확정되어 완성되는 그날까지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할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기도 동역자님의 동역이 없이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여 부족한 종을 도우소서

수/양/회/스/키/치



교회 개척자들을 위한 다섯번째 BTS (Bible & theological Studies) 신학 학위과정

장영미 (SWM 선교회 본부장, 교육팀)

지난 2024년 5월, 튀르키예의 알로바 아코이 리트릿센터에서 다섯번째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학생 17명 중 14명은 튀르키예, 이라크, 시리아, 이란, 남아공 출신으로 튀르키예 여러 지역에서 교회 개척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들은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 삼순, 초름, 카르스, 안디옥, 호파, 알라니아, 수루치, 말라티아, 반, 퀴티히야, 이스탄불 지역 등에서 알로바라는 지역으로 왔습니다.

수업 기간 중 문제가 생겨 중간에 돌아갔던 두 명의 학생과 수업에 참여하지 못했던 학생은 녹화된 수강을 듣고 5번째 수업 과정을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예배

5학기 수업 시작에 앞서 허강한 선교사의 인도로 30분간의 예배 시간을 가졌습니다. 터키어와 영어로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리트릿 센터의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며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하는 시간은 천국의 시간을 맞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BTS 학생들 중 엠레는 키보드, 팔하드는 기타로 그리고 탄셀은 드럼으로 연주하며 함께 예배

를 드렸습니다. 예배는 허강한 사역자 뿐 아니라 탄셀, 팔하드와 강우석 선교사의 인도하에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교회사

첫번째 주는 박형진 교수의 교회사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박형진 교수가 강의하고 니할 선생이 터키어로 통역을 했습니다. 매일 8시간의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수업을 마친 후, 박형진 교수의 나눔입니다.

5일간의 수업은 참으로 뜻깊고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귀한 학생들 한사람 한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통역이 동반된 수업이었지만 제가 준비한 내용을 거의 다 전할수 있었고 학생들도 진지한 자세로 끝까지 잘 경청해 주었습니다. 학생들이 수업에 관해 활발히 상호작용해 주었고 무엇보다 좋은 질문, 예리한 질문으로 반응해준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제 수업은 단순한 교회사를 넘어 선교역사를 다루고 다양한 교회의 전통과 선교, 신학에 기여한 부분을 다루었

습니다. 학생들이 아시아 배경 출신인 점과 튀르키예 지역이 초대교회나 아시아 교회사에 중요한 지역인 것이 장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수업을 통해 교회사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이 커지고 심화되었다는 학생들의 긍정적 반응에 많이 감사했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은 교회사 수업을 수강한 몇 학생들의 고백입니다.

존슨

지난 일주일엔 인생을 변화시키고 트랜스폼 되는 경험이었습니다. 교회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속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범한 사람들, 왕들, 사건들을 사용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발전시키는지 배웠습니다.

우리는 성경 이야기에 익숙하지만, 교회사는 우리에게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즉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겠다는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그 큰 그림을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음을 보호해가시는 지에 대한 섭리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더 인상 깊었던 것은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제 마음이 겸손해졌습니다. 제가 사역에 부름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휴리

교회 역사가 나를 매료시켰습니다. 저는 여성 선교사들로부터 많은 격려를 받았고, 특히 선교사들의 신앙생활에 대해 많은 격려를 받았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세상을 변화시킨 것은 탁월합니다.

김종훈

교회사 수업은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강의였습니다. 교수님의 수업 자료가 분량이 많고 매우 탄탄했습니다. 교회와 선교 역사를 파노라마를 보듯이 경험했고 디테일한 에피소드도 중간 중간에 이야기를 해주어 지루하지 않고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선교적 관점에서 교회사를 보는 부분뿐 아니라 교회사 자체를 좀더 깊이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두번째 주는 한진교수의 “결혼과 가족 상담”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한진교수의 강의와 니할선생의 통역으로 매일 8시간 씩 진행되었습니다.

수업 과정 속에서 한국계 미국 배경의 한진 교수의 결혼과 가정에 대한 본인의 경험을 나눌 때, 무슬림 배경의 학생들과 이견이 있어 갈등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그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공부해나가면서 학생들은 성경적인 가치관에 근거한 결혼과 가정을 세워나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짧은 비디오 클립을 시청하면서 남자와 여자가 소통하는 방법을 보면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고, 각자 가지고 있는 5가지의 사랑의 언어와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테스트하면서 자신의 사랑의 언어를 이해하고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참여했던 학생들 중에 다음과 같이 수업의 소감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존슨

이번 수업에서 경험한 것은 매우 강력했습니다. 저의 사역이 엄청나게 상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음의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교수님은 정말 많은 주제와 문제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누구나 다양한 문제들 중 하나는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전에 전혀 알지 못했던 나 자신에 대해, 그리고 내 결혼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가족과 사역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저는 이 수업을 통해 변화를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BTS 과정은 2022년부터 지금까지 5번에 걸쳐서 대면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횟수를 더할 수록 BTS 과정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함께 공부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며 주님 안에서 그들 안에 끈끈하고 깊이 있는 공동체 의식이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1기 BTS 과정은 올해 11월 2주간의 수업이 더 남아있습니다. 1기에 참여했던 BTS 학생들이 끝까지 이 공부를 잘 마치고 이곳에서 배운 것들을 그들의 사역의 현장에서 적용해나가며 풍성한 사역의 열매가 맺히길 기도합니다.

결혼과 가족 상담



2024년 4월 비전트립 사역보고

최재훈 팀장 (SWM 선교회)

이번 2024년 연합비전트립은 2024년 연중 행사 계획 중에 계획되어 있었으나 SWM의 어려운 상황 때문에 지연되었던 행사였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추진되었고 2월부터 각 교회의 선교부 담당 사역자와 장로님들께 광고하면서 시작했다. 가장 처음 전화를 받게 된 교회는 맥클린한인장로교회의 권사님으로부터 3명이 이 여정에 대해 관심이 있다는 메시지를 받게 되었고, 기쁜우리교회와 세리토스선교교회가 더해져서 26명의 인원이 채워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세리토스선교교회가 자체적으로 담임목사님을 모시고 선교팀이 결성하면서 인원이 15명으로 줄게되어 난항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비전트립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맥클린한인교회 선교부 장로님이 팀을 모으기 시작했고, SWM 국제이사회를 참석하셨던 코이노스영생장로교회 오건 목사님의 이슬람권 선교에 대한 열정에 의해 코이노스영생장로교회 팀이 가세하게 되어 26명이 다시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그 후, 이슬람과 무슬림의 구별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 킹덤스쿨이 진행되었고 그들의 마음에 이슬람권 선교의 불이 당겨지기 시작했다.

한 주에 3강의라는 힘든 수업과 과제 가운데에서도 수강생들은 각 강의의 소감문들을 제때 제출했으며, 각 교회가 팀을 이루어 기도하고 열심을 다해 '2024연합비전트립'을 준비해나갔다. 사실, 포기할까 하는 마음을 가진 참여자도 있었다. 하지만 더 큰 은혜와 도전이 그분에게 임했고, 결국 참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몸으로 체험하게 되었다.

가장 큰 우려는 참여자들이 많이 연로하셔서 여정을 마칠 수 있을지의 여부였으나 이번 '2024 연합비전트립'을 통해 더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 연합팀에 부어주셨고, 현장을 이해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며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의 교회를 돌아보며 이방 선교의 축복을 받은 우리의 신앙적 삶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계기가 되었고, 섬기는 CP들을 후원교회 교인들이 만나게 되어 그들의 고충을 듣고 기도제목을 나누게 되며 그들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끝까지 해 낼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은혜와 소망의 빛으로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팔십 평생의 가장 보람있고 귀한 여행

김 에스터 (애쉬번 은혜 교회)

하나님의 추억이 담겨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성경의 땅 튀르키예,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 그의 믿음과 복음의 순례길을 답습한 이번 전도 여행은 여러나라들을 방문한 제 팔십 평생의 가장 보람있고 귀한 여행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많이 걸어야했던 강행군이었지만 차도 없이 험준한 토로스산을 도보로 걸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와서 복음을 전한 사도바울이나 로마의 박해를 피해 아무런 도구 없이 맨손으로 기암절벽을 파서 동굴속에 피난처를 만들고 그곳에 교회, 신학교, 식당, 공기통, 우물, 기도실, 창고까지 만들어 참 신앙을 지켰던 초대 교인들의 고난에 비하면 저희들의 신앙 생활이 너무나 편하고 나태함을 느끼게 되었고 것처럼 견고한 믿음을 지켰던 초대 교인들을 향한 존경심에 깊이 머리가 숙여졌습니다.

요한 계시록에 기록된 에베소교회, 버가모교회, 두아디라교회, 사데교회, 빌라델비아교회, 라오디게아교회를 포함한 6개 교회 유적지를 둘러보면서 당대의 건축 기술에 감탄하였고 특별히 에베소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인 셀시우스 도서관에 만권 이상의 책을 소장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공사관계로 에게해 지방에서 가장 큰도시인 현재의 이즈미르인 서머나, 당시에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가장 박

해를 많이 받았던 서머나교회를 볼 수 없었던게 유감이었습니다. 그러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 교회 유적지를 볼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세계 가장 감동을 준 순간은 4월 28일 주일에 이스탄불에서 쿠르드 출신 목사님과 현지 선교사 김선희 선생님이 같이 개척하신 등대교회에서 아랍어와 비슷한 쿠르드어로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터키어로 통역하여 말씀을 듣는 터키 교인들의 아멘, 아멘 외치는 소리와 성령이 넘치면 그들은 새소리처럼 이상한 소리를 내며 할렐루야라고 찬양하는 예전엔 무슬림이였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그들의 순수한 신앙을 지켜보는 순간 감격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긴 예배가 끝난후 그들과 손을 잡고 “이사 세니 세비요르.” 라고 했더니 아멘으로 화답하던 그들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들인 중동지역의 무슬림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더 많이 세워져야하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해야 함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내년엔 바울의 고향 다소, 아브라함의 고향 하란, 노아의 방주가 멈춘 아라랏산, 수리아 안티옥을 포함한 터키 동부 지역과 그리스의 데살로니카, 고린도, 아테네를 방문하게 되는 일정으로 제2차 전도여행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느낀 종보기도의 기쁨

정지일 장로 (기쁜 우리 교회)

2024년 4월 21일 주일 오후, 흐린 날씨에 교회 밴으로 LA 공항으로 향한 11명의 튀르키예 단기 비전트립 참가자는 기대와 설렘 속에서 교우들의 배웅을 받으며 튀르키예 항공에 몸을 실었다. 13시간이라는 비행에 일행은 함께 앉아서, 얘기하며 이스탄불 공항에 도착하니 김경진 목사님 부부와 미국 동부지역에서 참가한 13명으로 총 26명이 만나서, 함께 여정을 시작하였다. 1월부터 비전트립 참가자를 모집했고, 교육과 모임으로 앞으로 있을 영적 싸움에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도 간구하였다.

월요일 저녁, 튀르키예의 호텔 도착한 뒤, 내일 4월 23일 화요일에 있을 뷰육아다 섬에서의 사역을 위하여 교육과 설명을 받았다.

10여년 전부터 시작된 아름다운 사역. 무슬림을 전도하는 이 사역을 향한 김선희 선교사의 열정적 강의에 모든 참가자는 기대와 호기심이 찼다. '뷰육아다'는 '크다'라는 뜻인데, 매년 4월 23일, 많은 무슬림들이 '큰 섬'이라는 뷰육아다의 교회에 가서 개인의 간구와 가족의 소원을 비는 일종의 비신앙적이고 미신적인 행사에 모인 이들에게 전도하는 사역이었다.

이날은 튀르키예의 어린이날인데,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건강의 문제가 기독교의 교인들의 기도로 치유의 이적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많게는 5만 명 이상이 함께 참여하는데, 작년에는 지진으로 성사되지 못해서인지 금년에는 2만여 명이 참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튀르키예 곳곳에서 차편으

로 부두에 와서 20여 분 배를 타고 도착하여, 또 거기서 작은 전기 버스를 타고 산을 올라갔다. 버스를 40 - 50분 동안 기다렸다 타고 산 위에 도착하니 아침 9시경 인데도 많은 무리들이 삼삼오오 가족과 친구끼리 작은 산을 오르고 있었다. 산을 오르는 길은 외길이었으나 길 양편에 테이블을 설치하고 성경과 전도지와 작은 선물들을 비치한 뒤, 사역팀들은 올라오는 사람들에게 받을 의사를 물어보고 성경책과 전도지와 복음 팔찌를 전했다.

나라에서는 강제로 성경책을 주거나, 18세 이하의 사람에게 전도지를 주지 못하도록 규제한다고 한다. 왜 이들이 먼 곳에 찾아 왔는지, 호기심도 있고 그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서 더 복음을 설명하고 원하면 기도를 하게 된다.

그중에는 '몇 년전에 기도를 받아서 나음을 받았다'고 다시 찾아 오는 이도 있다고 했다. 저희들의 준비해 간 복음 팔찌가 그들의 눈에 유혹되어, 더 많은 이들에게 성경을 나눠 줄 수 있었다. 전도지에는 별로 관심이 없지만, 오색찬란한 가족 끈의 팔찌에 그들의 눈이 꽂혀 있는 듯하다. 그래도 이렇게 해서라도 그들에게 전도할 수 있으면 참 좋구나 생각이 든다.

점점 올라오는 무리가 많아져 길이 막히기 시작하였다. 테이블 위에서 각국에서 온 전도자들이 찬양하며 예수를 믿으라고 큰 소리를 낸다. 큰 종이에 글씨를 적어 보이기도 했다. 준비해 간 복음 팔찌가 5천 개에서 1천 개만 갖고 간 것이 후회스럽고, 연로하여 짐의 무게를 줄인 것도 후회스럽다. 위쪽

광장 한쪽 편 산으로 올라가는 길목에는 파이프 기둥에 가는 실을 묶으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 오색실을 나무 가지 끝에 묶어 계속 풀어 가며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혹여라도 실이 끊어질까 노심초사하며 끈을 잡고 간다. 이 실이 끊어지지 않는다면 그들의 소망과 건강과 가족과 간구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다.

튀르키예에는 9천만 명의 인구 중에 1만 명(0.01%)만이 기독교인이고, 현재 170개 교회가 있다고 한다. 몇 년 전에는 거의 전무한 것을 본다면 그것 또한 기적적인 것 같다. 튀르키예 정부에서도 이 날을 허락하여, 수백년 전에는 기독교 국가였던 이 나라에 복음의 작은 불씨가 이곳을 통해 번져 나가고 있는 듯 했다. 99%가 무슬림이지만 그 중 진짜 무슬림은 15% 정도이고 가족을 통해서나 무슬림이 되었거나 무늬만 무슬림인 사람도 많다고 들었다.

산 밑으로 내려와서도 그 행사를 허락한 공식적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나는 성경을 들고 열심히 나눠주었다. 그 가운데 옆에서 있는 사역자님이 저한테 기도를 받겠다고 한 젊은 30대 남자 한사람을 데리고 왔다. 기도 내용을 받고 열심을 다하여 그 남자를 위해 기도했다. 나에게 찾아온 그에게 기도하며 뜨거워진 마음에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기도를 마치니 사역자님은 튀르키예어로 기도하고 성경과 전도지를 주며 복음을 설명하였다. 두 번째는 중년의 40대 여자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요청하여 또 열심히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기도를 드렸다. 나에게도 이런 기회가 오다니 참 기분이 좋았다. '잘 왔구나' 속으로 읊조려 본다.

일찍이 튀르키예에 와서 사역자와 결혼한 크리스탈이라는 여자 사역자는 12살의 첫째 딸을 이곳에 처음으로 데려왔다. 점심도 먹지 않고서 정말 열심히 튀르키예어로 소리치고 전도하는 이분들은 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열심히 할까? 나는 그들의 행동에 이성적 의문이 들었다. 그들이 예수님의 심장을 갖고 땡벌에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안이했고 필요할 때만 움직였던 나의 50여 년의 신앙생활이 부끄러웠다. 이 먼 곳까지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나와 팀원들에게 있을 것이다. 주님 오실 날을 깨닫고 행동하는 크리스천이 되길 소원한다.

요한계시록 초대 일곱 교회, 동굴교회, 지하교회를 돌아다 보았다. 지금은 부서져 버린 대리석 기둥과 조각과 동굴을 보면서, 그 먼 옛날 사람들은 물자도 부족하면서, 삶의 터전을 버리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신앙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였을까

질문을 던져본다. 핍박 받으면서도 예수님의 피가 그들의 핏속에 흘렸단 말인가? 신전 옆에 세워진 자그마한 교회에서도 찬양과 기도의 말씀이 있었을 것이다. 편안한 21세 교회는 무엇하고 있으며, 그렇게 분주하고 바쁘게 사는데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똑같이 느끼며 사는 것일까? 10여 년에 보았던 똑같은 일곱 교회의 모습이지만 또 새롭게 나에게 다가온다.

주일에는 웨로목사님이 섬기는 등대교회를 방문했다. 50여명 들어갈 작은 본당, 옆방에는 어린아이들 10여 명이 성경공부를 하고, 다른 방에는 십여 명의 조금 더 나이든 학생들이 공부하고, 작은 화장실과 목사님 사무실이 전부인 교회는 쿠르드 난민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래도 젊은 청년들의 외침과 같은 찬양과 탄식의 기도, 그리고 휘파람 소리가 교회를 휘감는다. 어려운 달동네에 있는 이 교회의 월 1200불 렌트비도 큰 부담으로 곧 이사 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곳에 와 섬기는 한국인 사역자들과의 만남도 새삼 나에게에는 생소했다. 소외받고 사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주며 봉사하는 이들을 보며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질문을 던져본다. 교회의 구성원들이 젊어서 좋았다. 소망이 보인다.

때에 따라 하루에 다섯 번씩 스피커로 울려지는 알라신에 대한 기도(애잔) 가운데서, 애배하는 이 젊은 청년들에게 육의 양식과 하늘의 상급이 꼭 있을 줄 믿는다. 한 사역자의 부인은 이번에 방문팀이 함께 와서 그런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다.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하여 그녀의 심장에 복음의 씨가 뿌려짐을 느끼며 함께 축복하며 기도를 드렸다. 몇 년 전에 이 교회를 방문했던 분의 말씀대로 그 당시에는 교회가 썰렁했는데, 이제는 아이들이 40여 명 성인들이 30여 명의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곳에 주님의 임재와 동행을 기도해 본다. 그날 저녁 시리아에 접경 지역에서 사역하는 에크렘 목사님과의 만남속에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또 무슬림들과 공존하며 겪는 어려움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사역자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그 사정을 알 것만 같았다.

첫째, 현재 믿음 생활하는 교인들이 담대하게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둘째, 사역자의 가족, 네 명의 아들과 두 살짜리 딸과 부인이 그 사회에서 핍박과 따돌림 당하지 않도록, 세 번째는 교회 장소에 이전을 하려는데 무슬림 주민들의 반대로 장소를 이전하기 어렵다는 내용이었다. 앞으로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60여 명의 교인들의 삶에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해야겠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바라보는 관점

송준기 목사 (Way Church 담임 목사)

여행금지 국가들

코로나 직후 지난 2년간, 휴일 여행객들이 해외로 다녀오는 수치가 급증했다. 일례로, 한국관광공사의 "데이터랩"에 의하면, 해외 여행자의 수는 2023년 대비 246.6%나 증가했다. 외국 여행객의 증가로 바뀐 현상 중 하나는, "여행 금지국가들"에 대한 정보의 대중화다.

한국의 경우, 외교부 여권 심의 위원회에서 여행 금지국가들을 지정하고 있다. 금지국가들을 살펴보면, 그들은 대부분 지정학적으로 근접해 있다.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이라크, 이스라엘(출국 권고국가) 등, 이들은 모두 중동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흥미롭다.

중동 지역에 무슨 일이 있는걸까?

외교부에서 중동지역 국가들을 여행 금지국으로 지정한 이유는 단순하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아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크게 다음 세 가지 이유가 있다.

- 1) 전쟁이 있는 나라는 입국할 수 없다.
- 2) 이슬람 종파 전쟁으로 내전중인 나라도 입국 금지다.
- 3) 사막을 점령한 무슬림 급진주의자들이 있어서다.

여기에 공통점이 있다. 셋 모두 이슬람 종교와 관련이 있다.

중동 무슬림 국가들은 무엇이 문제인가?

현재 중동 지역의 분쟁은 복잡한 역사적, 정치적, 종교적

요소들이 얽혀 있다. 이를 단순히 말하자면, 두가지 종교적 충돌로 표현할 수 있다. 순니파와 시아파 사이의 갈등, 그리고 이슬람과 유대교 사이의 갈등이다.

이슬람은 중동 지역의 주요 종교 집단으로, 크게 순니파와 시아파로 나뉘어 있다. 이들 간의 갈등은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의 후계자를 둘러싼 분쟁에서 시작되었다. 순니파는 무함마드의 동료인 아부 바크르를, 시아파는 그의 사촌이자 사위인 알리를 후계자로 지지하면서 갈등이 발생했다.

한편, 유대인들은 1948년 5월 14일,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고 독립을 선언했다. 이로써 약 2,000년 만에 유대 민족은 고대의 땅으로 돌아와 독립 국가를 재건했으나, 기존에 땅을 차지하고 있던 아랍 민족들과 영토 갈등이 시작되었다. 현대에 들어서도 이러한 갈등은 중동의 정치적 대립과 함께 지속되고 있다. 시아파의 이란과, 순니파의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의 대립은 중동 정세를 불안하게 하는 주 원인들 중 하나다. 두 나라는 각각 시아파와 순니파 세력에 대한 지원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있으며, 이는 이스라엘, 예멘, 시리아, 이라크 등 여러 나라에서 "그림자 전쟁"을 초래하고 있다.

중동 무슬림 국가들은 종교 문제만 있는가?

중동 지역의 문제는 비단 종교 분쟁만이 아니다. 중동국가들은 정치적 부패와 독재, 경제 불균형, 서구 정치와 경제

의 개입 등으로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게다가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들은 이러한 혼란을 이용해 세력을 확장하며 테러와 폭력을 일삼고 있기까지 하다. 중동 분쟁은 단순히 종교적 갈등 뿐 아니라, 정치적, 영토적 이해관계와 역사적 배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여행금지국가들의 뿌리

출국 권고국으로 새롭게 대두된 이스라엘 역시 중동 정세의 핵심에 있다. 현재 그 지역에서 전쟁중인 이슬람 단체, 하마스의 기원과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1세기 사마리아 지역과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

그곳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종교적, 정치적, 영토적 갈등이 심했던 지역으로, 현대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갈등의 선조격이다.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혼혈로 인해 유대인들의 경멸을 받았고, 이러한 역사적 배경은 오늘날의 복잡한 중동 갈등의 맥락과 유사하다.

이스라엘은 왜 출국 권고국으로 포함되었을까?

한국 외교부는 하마스와의 연관성 때문에 이스라엘을 출국 권고국가로 지정했다. 이는 하마스의 폭력성과 테러리즘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조치로, 이 지역의 평화와 안보가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보여주는 결정이다.

그렇다면, 하마스란 무엇일까?

하마스는 1987년에 설립된 팔레스타인 이슬람 저항 운동을 뜻했으나, 현재는 이스라엘 가자지구에서 활동하는 무슬림 무장 단체를 말한다. 이 단체의 이름은 아랍어로 "저항"을 의미하며, 공식적으로는 "이슬람 저항 운동"(Islamic Resistance Movement)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며, 팔레스타인의 전 지역을 이슬람 국가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마스는 정치적, 사회적, 군사적 활동을 모두 수행하는 무장 단체다. 하마스는 2006년 팔레스타인 입법 위원회 선거에서 승리한 이후 현재까지 가자지구를 통치하고 있다.

출애굽 백성들과 가나안 민족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 이렇

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사백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창 15:13-14)

이 말씀에 따르자면, 출애굽은 두 가지 목적이 있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의 구원이었다. 그로부터 약 400년 후, 하나님의 말씀대로 출애굽이 진행되었다. 애굽에 대한 심판과 이스라엘의 구원이 함께 진행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후, 모세의 다음 세대가 가나안으로 진군했다. 하나님의 명령은 가나안 민족에 대한 "진멸"이었다.

하나님의 진멸 명령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땅을 이슬람 국가로 만들기 위해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다. 이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을 두고 싸운 것과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민족을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다.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신 20:16, 17).

또한, 왜 진멸해야 하는지, 그 이유도 설명해 주셨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신 20:16-18).

하나도 남김없이 심판해서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였다. 그러나 여호수아 세대는 이 명령에 100% 순종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민족을 다 없애지 않고, 일부를 남겨 종으로 부렸다. 가나안 민족은 이스라엘과 섞여 살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이상승배를 본받았다.

여호수아 세대의 불순종은 사사시대에 이어 열왕기와 역대기의 문제들로 이어졌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민족들에 대한 처리의 문제는 갈수록 복잡했다. 우상숭배 뿐 아니라, 정치적, 영토적 분쟁 문제로 발전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현재의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갈등도 성경 역사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었나?

성경 맥락으로 하마스를 살펴보기 전에 잠시, 구약 역사를 되짚어보자.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이 분열되었다. 이때 앗수르인들이 이방인들을 사마리아 지역에 의도적으로 정착 시켰다. 이것은 혼혈을 만듦으로써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없애기 위한 시도였다. 거기다가 그리스 산에 사마리아인들 자신들만의 성전을 따로 짓게 했다. 안그래도 순혈주의가 무너졌는데, 신앙까지 변종이 된 상태가 되었다. 그 사이 남유다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 그리고 7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바벨론 포로에서 남유다, 이스라엘이 본토로 귀환할 때였다. 자신들의 오랜 영토 한복판에 귀환 반대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자칭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했던 혼혈, 혼종의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다. 유대인이 본토로 돌아가는데, 본토에서 반대하는 민족, 사마리아인. 그들과 이스라엘 귀환자들 사이에는 늘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하마스와 사마리아

하마스를 비롯한 중동 분쟁의 핵심 요소는 종교적, 정치적, 영토적 분쟁이라 점이다. 이 세가지 요소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그대로 있었다.

흥미롭게도, 예수님은 유대인 남자였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이 문제 많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신 장면이 하나 등장한다.

요한복음 4장이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수가성 여인에게 말을 걸고, 대화를 시작하셨다. 수가성 여인은 당시, 이스라엘과 분쟁중이던 사마리아인이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유대인 남자로서 사마리아인에게 다가갔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처음에는 "유대인 남자"로 대했지만, 대화를 거쳐 "선지자"로,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까지 생

각이 바뀌었다 (요 4:5-42) 그 사이 이스라엘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화합과 하나가 됨이 진행되었고, 이야기는 다음과 같이 마무리 된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요 4:29, 30)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의 생각 변화는 동네 전체로 퍼졌다. 예수님과 만났던 한 사람은 곧 마을 사람 전체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다 놓기에 이른다.

여자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틀간 들었다. 그리고 바뀌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들을 뛰어넘는 진리 지식,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라는 답을 얻게 되었다.

중동 정세의 해결책을 성경 역사는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하마스는 현대 중동 분쟁의 중요한 요소이다. 이것은 역사적 배경이 있고, 전례가 있는 일이다. 역사는 반복된다. 과거,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능했다.

그렇다면, 오늘도 같은 방식으로 중동 분쟁 국가들 사이의 평가가 가능하다. 이 변화는 대낮에 물 뜨러 나온 한 여자에게서 시작해서 도시 전체로 확산된다. 성경을 아는 우리는 중동 정세를 바라보며, 비전을 갖게 된다. 구약 성경의 역사적 갈등의 끝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셨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 사실을 가지고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었듯, 중동 분쟁 역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복음의 핵심을 통해 해결 될 것이다. 예수님을 만난 무슬림 한 사람이, 이슬람 도시 하나를 변화시킬 것이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요 4:39)



C/P/소/식

우울 Ugur Mutlu

개인 소식

큰 딸과 그녀의 남편은 안탈리아에서 이스탄불로 이사했습니다. 그들이 새 집에 정착하고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 소식

마침내 교회 처소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미국에서 터키로 돈을 이체하는 방법을 알아 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명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8월에 장소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성경 수업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제목

• 형제를 위한 기도

- 한 젊은 형제가 죄를 지었는데 그를 회개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 형제가 삶을 회복하고 완전히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 한 형제는 직장을 잃고 임시로 일하고 있는데 더 나은 직장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 가족을 위한 기도

- 큰 딸과 사위가 새로운 곳에서 잘 정착하고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 교회를 위한 기도

- 새로운 교회 처소를 8월 안에 구할 수 있도록
-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성장해 나가도록

SWM USA

후원 안내

단 한번의 마음이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단 한번의 마음으로도
아버지의 마음이 향한 그 곳에 하나님의 사람과 교회가 세워질수 있습니다.



Zelle :finance@silkwavemission.com
Memo : BM



Zelle :finance@silkwavemission.com
Memo : PS



Zelle :cpf@silkwavemission.com

● Check으로 보내는 방법

Pay to the order of:

일반헌금: **Silk Wave Mission**

교회개척헌금: **Church Planting Fund**

Silk Wave Mission

2111 W. Crescent Ave. Unit E, Anaheim, CA 92801

● 문의

전화번호: 714-999-8639

일반헌금: **박은경 팀장**(swmacct@swmnet.org)

교회개척헌금: **김호성 팀장**(cpf@swmnet.org)

※ 실크웨이브 선교회는 연방정부에 501(c)(3)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단체로서 후원자님의 헌금에 대해 세금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헌금을 보내실 때 헌금의 목적 및 헌금 영수증 수신을 위한 이메일 주소를 꼭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